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2월 1일 (제1282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눈을 떠라

“만물을 상품으로 보는 눈을 가져라.”
내가 사업가나 젊은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무용(無用)한 것을 용(用)하게 하는 지혜를 가르친 것이다.
실제로 어느 장로는 내 말을 듣고 남들이 쓸모없다고 하는 것에 손을 대었다. 그는 폐가구를 거둬들여 수리하여 동남아시아에 수출해서 엄청난 기업이 되었다. 그는 청년부 토요일예배 때 간증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청년 여러분, 나는 목사님 말씀 중에 ‘만물을 상품으로 보라’는 말씀과 ‘십일조를 꼭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최고의 성공비법입니다.”
그렇다. 봉이 김선달은 일찌감치 눈을 떠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당시 그것이 황당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떤가? 웬만하면 다 물을 사먹는 시대가 열렸지 않은가. 사람들은 이제 더는 돈 벌 것이 없다고 한다. 나올 건 다 나왔고, 해볼 건 이미 다하고 있기 때문에 돈 벌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만물을 상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상에 널린 게 돈 버는 것이 된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다. 남들과 다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눈을 돌려야 기회가 있다. 사람들은 자원의 고갈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아니다. 자원의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 세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란 창조적인 생각이요,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이다. 만물에 아이디어를 불어넣으면 그것이 곧 상품이 되고, 그것이 돈이 된다. 돈이란 애벌레는 아이디어를 쫓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시세를 아는 자, 시류를 읽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신 것이고, ‘지혜가 제일’이라 하신 것이다(잠4:7).
고착된 생각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다른 각도로 보라. 뒤집어서 보고, 거꾸로 보라. 거기에 아이디어를 보태면 평범한 사물이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상품으로 둔갑할 것이다.
만물을 버릴 게 없다. 만물을 상품으로 보는 눈을 떠라.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적을 맛보자

멕시코(Mexico)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토요일예배를 위해 노량진교육관과 문래교육관을 순회하시며 하루 세 번 설교하셨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고 우리 한번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켜보자!’고 촉구하신 이날의 메시지는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며, 기도는 하늘과 땅의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

념관에서 무수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면 여러분도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도 한번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켜보겠노라’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 여러분도 오늘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처럼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이 가라니까 간다. 돈 준다면 절대 안 간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갈 생각이 없다. 국내에도 일할 곳이 천지인데 그 먼 곳까지 몸 상하며, 돈 들어가며 갈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내 주인이 가라하시니 나는 간다.”
멕시코로 떠나시기에 앞서 신학교 강의에서 한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의 해외집회를 보면, 집회를 앞두고 꿈이 안 좋거나 염려와 걱정을 표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그런 우려를 무릅쓰고 가시고, 어떤 때는 그러한



목사님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를 순회하시며 하루 세번 설교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청년부 토요일예배 광경, 문래교육관)

는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홍해를 가르키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보았고, 한나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음에도 간절한 기도로 태의 문을 여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머리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기드온, 다윗, 솔로몬, 막달라 마리아, 바울 등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그 시대 그 역사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나 역시 40년 목회 동안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메인스타디움의 역사, 수많은 해외집회의 역사, 시청에서, 전쟁기

그냥 이대로 있을 겁니까?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 모세처럼, 한나처럼,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여러분도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학자의 학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제 멕시코 집회를 위해 장도에 오르셨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3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며 가야 하는 먼 여정입니다. 목사님 연세에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지요.

우려를 이유로 접기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주 심플하게 단 한마디로 답하셨습니다.
“내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목사님의 목회 40년은 항상 목사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십니다. 오전 세미나와 저녁 집회로 꽉 찬 스케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 멕시코 집회에 전대미문의 대역사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은택 목사

12월 산상집회

날짜: 12월 9일(월) ~ 12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벧전5:8~9)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적을 맛보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뜻은 ‘이제까지 들 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대미문의 사건, 전대미문의 기 적, 전대미문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습니 다. 먼저 모세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진정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감 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들 앞 에 출렁이는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더는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만 것 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의 변심으로 인 해 애굽의 군대와 마병이 추격해오고 있 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 는 애굽군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 歌),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이었습 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 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는 소 리를 들으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 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 라”(출14:16)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 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홍해 가 찢 한니 갈라졌습니다. 물이 벽을 이 루고 갈라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대미 문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로써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바다를 가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여호수아도 전대미문의 기적을 체험했습 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 나안 땅을 하나 둘 점령해가자, 이에 두 려움을 느낀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과 화친을 맺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붙어 야 살겠다는 심정이었겠죠. 기브온 거주 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쟁싸게 가나안 땅으로 퍼져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가나 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수10:2). 왜냐하면 큰 성인데다 전투력까지 막강 한 기브온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 라엘과 손을 잡아 천하무적이 되었으니 가나안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여러 족속들 이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기브온을 침공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거주민들은 여호 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 청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승낙을 받 고는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 우러 나갑니다(수10:8). 당연히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 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의 전멸 을 위하여 하나님께 해와 달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수10:12). 그랬더니 정말 대

적에게 원수를 다 갚도록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수10:13). 그야말로 전 대미문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 까.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머물게 하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기적의 사건이 있 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 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너는 죽으리 라’ 하셨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면으로 향하고는 자신의 그간 행한 선 한 일들을 기억해달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수한을 15 년 연장해주셨 습니다. 그 증거로 일 영



총회장 이초석 목사

표 에 나 아 갓 던 해의 그림 자가 십도를 물 러가게 하셨습니다(사 38:8). 시간을 뒤로 돌린 사건입니 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엘리야의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아합과 이스 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이에 엘 리야는 아합왕에게 가서 바알 숭배의 죄 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왕상17:1). 그리고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말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 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에 는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이슬조차 없 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엘리야는 온 이스 라엘을 갈뎃산으로 모았고,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렀습니다. 비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 인지 바알인지, 참 신이 하나님인지, 바알 인지 밝히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규례 를 따라 그들의 신을 불렀으나 그들의 신 은 나갔는지, 잠을 자는지 답이 없었습니

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 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 이 오라’ 하고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와 제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불을 내 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태웠고, 도랑의 물까지도 활아서 말려 버렸습니 다. 이에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을 간절히 구하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 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왕 상18:45). 가뭄을 해갈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전 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기적을 이끌어낸 그들의 공통 점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했 다는 것 입 니 다 . 모 세 가 하 나 님께 부 르짖 었 고 (출14:15), 엘리 야는 “땅에 꿇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왕상 18:42)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 는지 야고보서 5장 17~18절에 “엘리야 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 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 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도 면벽하고 얼마나 껴이꺼이 울며 기도 했는지,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 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 도록 앙망하나이다”(사38:14)라고 성경 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기도예 하나님은 전에도 없고, 후에 도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 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 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 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 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2~3).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부르짖으라는 것 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히, 꼭 응답받겠 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부 르짖던 하갈이 광야에서 물을 얻은 것 같 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듯이 우리도 기도하면 동일하게 전 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 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앓은병이를 일 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도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 로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넉넉 히 지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 아닙 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 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 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5:7). 전대미문의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우리가 어떻게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 만함을 입으면 가능합니다. 성령에 충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하겠 기 때문입니다. 전대미문의 기적도 충분 히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란 인격의 척도요 인생의 방부제다

제가 세계에 나가 ‘오늘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사요.’ 라고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제가 배짱 이 두둑해서가 아니라 집회 전에 일곱 시 간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에, 그래서 성 령충만함을 입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전대미문의 기적, 전대미문의 축복 을 받아봅시다. 그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부르짖을 때 “하 갈아 무슨 일이냐”(창21:17) 하신 하나님 이, 모세가 부르짖을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출14:15)하신 하나님 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동일하게 “무슨 일이냐? 무엇을 해결꼬?”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 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 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 으시겠느냐”(눅18:6~7).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컨텍스트(context)

만추의 계절이 가고 곧 매서운 추위와 함께 겨울이 오겠죠.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훈기를 더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처음 던지는 몇 마디의 말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유명한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대부분의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은 서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말, 같은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와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니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텍스트만으로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컨텍스트(context), 곧 그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하 이겁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집회에서도 18번으로 강조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적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소의 새끼는 소, 개의 새끼는 개,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앞의 짐승이나 사람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 있게 답하다가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지 답을 잘 못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말하는 게 몹시 거북한 거죠. 그러나 목사님은 이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본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神)적 정체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어의 정의와 맥락을 이해하면 전혀 오해할 소지가 없는 데, 무조건 어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냐고 핏대를 세우며 정죄하고 판단하려 하니 답답합니다. 복음 중의 복음으로 엄청난 파위를 가진 메시지인데 말입니다.

컨텍스트, 곧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열고 상대의 이야기 패턴과 내용을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네요.

Henry Han

:: 빛과 소금 ::

공동체 안에 흐르는 축복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늘 주님과 가까이 호흡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그 훈련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관계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공동체를 주셨다. 가정, 교회, 교구, 부서별 공동체 등등... 누군가는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혼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가장 큰 두 가지 축복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과 둘째,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때론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면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각자의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위로가 되면서 어느새 나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또 둘셋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성경에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처럼 혼자만의 자유함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자. 섬기려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송지혜 집사

:: 경배와 찬양: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얼마 전 아침,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은 가장 먼저 엘리압을 만났습니다. 엘리압의 모습만 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삼상16:6~7). 저는 문득 ‘내가 엘리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이면서 생도인, 아주 보기 좋은 겉모습을 가지고서도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이방인처럼 뒷집 지고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전장에 나간 다윗이 골리앗에게 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또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욕해

야 할 엘리압은 오히려 동생인 다윗에게 교만하다며 심하게 나무랍니다(삼상17:28).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엘리압은 전쟁에 출전해 있었지만(삼상17:13) 그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잘 것없어 보여서 전쟁에 출전도 못하고 도시락이나 전해주러 왔던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쓰러트렸습니다.

내가 엘리압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되레 정말 주를 위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아침이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윤예녹 생도



:: 생명의 말씀 ::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성역 40주년을 맞으신 총회장 목사님이 그간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으셨는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당장 예배 장소가 없는 상황, 오랜 시간 준비한 해외의 야외 집회 장소에 비가 쏟아지거나,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기가 끊어져 마이크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KGB에서 조사를 받거나, 사랑하는 제자가 떠나가는 상황, 건강의 위기나 총칼의 위협 앞에서나 지면상의 한계로 다 적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을 지나오신 분이 바로 총회장 목사님이다.

총회장 목사님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나도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다. 질병과 물질, 가정과 사업의 위기, 교회와 성도의 위기,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생사의 갈림길... 그러한 위기 때마다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첫 번째는 한 걸음을 땔 때마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렇게 힘껏 외친다. 그러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와 이길 힘을 주신다. 그리고 도우신다.

두 주일 전에는 길가에서 채소를 다듬는

아주머니 두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냐고 물어보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눈물을 푼푼 흘리시는 것이었다. 이전에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이였다. 그다음 주에 그분이 내가 보고 싶었다며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던 그분이 생각나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성도님도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외쳐보기를 바란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주먹을 꼭 쥐고 소리쳐보길 바란다. 그리고 신문 전단과 전도용 물티슈를 세 개씩 가방에 넣고 하루 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보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전 성도들이 위기를 넘어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고, 더욱 많은 간증이 쏟아져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축복하고 기도한다.

장순천 목사

:: 주님을 향하여 ::

:: 귀를 기울이세요 ::

눈 맞추기

맹수가 풍성한 갈기를 뽐내며 어슬렁어슬렁 무대 위로 올라선다.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는다. 마치 그 모습이 주인의 칭찬을 기다리는 애완견 같다. 맹수 앞으로는 빨갛게 불타고 있는 링이 보인다. 불길의 열마나 센지 작은 불씨들이 끊임없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튀어 오르고 있다. 불타는 링을 사이에 두고 사육사가 맹수를 마주 보고 서 있다. 일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그렇게 서로를 한참 바라보는가 싶더니 이내 사육사의 기압 소리와 함께 맹수는 맹렬히 불타는 링 속으로 뛰어든다.

서커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사나운 맹수가 불타고 있는 링을 통과하는 모습에 모두가 신기해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은 사나운 맹수가 자기보다 연약한 인간 사육사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육사에게 같은 것을 묻는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저 사나운 맹수를 애완견처럼 다룰 수 있냐고. 그 질문에 사육사들은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한다. “많이 사랑해 주면 됩니다.”

털 많은 동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불이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 해도 털에 옮겨 붙으면 동물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맹수는 불붙은 링을 통과하라는 사육사의 위험한 요구에도 순종한다. 그만큼 사육사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한 맹수는 사육사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것이다.

사육사와 맹수의 모습에서 주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유일하게 사라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롬5:8)을 믿기에, 우리 또한 맹수처럼 주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선하

고 용감해진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 불 속으로 들어가도, 거센 파도가 덮쳐와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롬8:35).

불타고 있는 링으로 뛰어들기 전, 맹수는 사육사와 오래도록 시선을 맞춘다. 그 시선을 통해 맹수는 불 속으로 뛰어들 힘을 얻는 것이다. 인생의 거센 무대 위에 서 있는 우리 또한 힘을 얻기 위해,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인생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시선을 맞추자!

박영임 전도사
jjambballqueen@naver.com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집 앞에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이다 보니 편한 옷차림에 생활필수품을 사러 자주 가는 곳이다. 때로는 화장도 안 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 반바지에 반팔티 차림으로 편하게 가는 곳이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는 이곳을 편하게 갈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필자의 어머니가 ‘우리 딸은 신학생이에요.’라고 편의점 사장님에게 말해버린 것이다. 그 때부터 편의점을 갈 때도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 눈곱은 안 겹는지 외모 체크를 한 후 공손한 자세로 가게 되었다. 신학생이라는 나의 신분을 밝히면서 피곤함은 있었지만 나를 더 의식하고 나를 다듬게 되었다.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신분을 드러내야 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5:15).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등불이 어찌 책상 밑에 숨겨져 있을 수 있겠는가. 등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들 앞에 신분을 밝히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밝히셨다. 그분이 계속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묵수로 살았다면 편했을뿐더러 제사장들의 핍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기에 이런 고난과 함께 영광도 같이 찾아온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다. 크리스천은 산 위의 동네이기에 드러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편한 것만 좇는 크리스천이라면 영원한 크리스천은 될 수 없다고 하신다. 우리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마10:32).

송현혜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삶’이란!

인생 8부 능선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니 인생이란 나와와 싸움이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병이 분노와 욕심이다.
영혼육의 병도 다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병이다.
무릇 지킬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 못 이룰 것이 없고 못 이길 자가 없더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주위에 사람이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더라.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하려면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인생은 결국 나와와 싸움이고, 천국과 지옥도 내가 만드는 것이며
명작이란 작가의 생각과 언어가 만든 결과물이니
생각과 언어를 다스려서
우리,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축복을 받아보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25:28).

봉우 이초석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과 건강차는?

치매는 정상적인 지적기능이 나이가 들어 후천적으로 인지기능이 손상됨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뇌가 손상되고 감퇴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줌으로 5살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치매의 50~70%는 알츠하이머 치매이며, 25%는 혈관성 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에는 Donepezil과 같은 치료약이 있으나 치매를 늦추어줄 뿐 치료 효과에는 한계가 있고, 치매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혈압관리로, 수축기 혈압 10mmHg, 이완기 혈압 4mmHg를 낮추면 치매 발생 위험이 평균 1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청력 보호로,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지니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도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니 건강한 공기를 자주 마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금연 금주는 치매 예방을 위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인지 활동은 치매 위험을 23% 낮춘다는 보고가 있으며, 여기에는 독서, 일기, 라디오 듣기, 게임, 악기연주, 컴퓨터 사용, 공예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중해 식단으로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 콩류를 많이 먹고, 생선류는 적당히 먹고, 적색 고기는 적게 섭취하며, 1주일에 5회 30분 이상 숨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운동을 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면역력은 물론 치매 위험을 줄이며, 지나친 스트레스나 과도한 긴장도 치매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치매에 사용되는 건강차로는 석창포, 원지, 황기, 당기, 구기자를 하루에 5g씩 연하게 우려서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석창포의 아사론 성분은 건망증, 치매에 효능이 있으며, 구기자는 리놀렌산 성분으로 치매 유발 성분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막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당귀 안에 데커신 성분은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황기는 뇌의 혈액순환과 뇌혈관질환에 좋으며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억과 생각을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